



제3장 근세사 近世史

제 1 절 일제강점시대(日帝强占時代)

1. 강점(强占)조약 강제 체결 공포

경술년(庚戌年)(1910) 일제는 통감부통치를 종결하고 한국을 완전히 강점해 버렸다. 강점조약은 庚戌年 8월 22일에 체결되었으나 한국을 일제에 병합하는 건의로서 조서와 조약발표는 8월 29일에 있었다. 우리는 이날을 국치일로 정하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1910년 8월 29일에 강점조약이 체결되고 공포되었지만 이미 1909년 7월 12일에 있었던 일본각의(日本閣議)에서 「강점후의 통치형태」 「총독부 관제의 대강」이 결정되어 계획절차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였다.

당시 日本에 돌아와 있던 사내정의(寺內正毅) 통감(統監)은 병합처리안을 각의에 제출해 결정을 본 후 1910년 7월 23일 취임하였다. 이때 일본각의에 제출되었던 병합처리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명칭의 건
(한국(韓國)을 개칭하여 조선(朝鮮)으로 할 것)
2. 조선인(朝鮮人)의 국제법상의 위치
(조선(朝鮮)은 특별히 법령 또는 조약으로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외는 모두 내지인(內地人)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

간도(間島)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조약의 결과로서 현재와 똑같은 지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 함. 외국에 귀화해 현재 이중(2重) 국적을 지닌 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적법을 행할 때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 시민으로 간주함

제외국(諸外國)에 병합 통고

1910년 7월 23일 취임한 사내정의(寺內正毅)는 주차조선군사령부(駐劄朝鮮軍司令部)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사령관 헌병사령부 명석원이랑(明石元二郎)들의 무력적 위협과 친일내각(親日內閣)의 반역적(反逆的) 담합(談合)을 이용해서 병합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누리고 있던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청나라,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정부들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병합하였음을 통고하고 ‘앞으로 조선과의 체결되었던 인권(人權) 물권(物權) 선박권에 대하여서는 일본의 법권 안에 둔다.’ 라고 선언하고 이로써 한국은 일본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강제적으로 완전히 병합되기에 이르렀다. 제2장 근세사(近世史)

2. 조선총독부강점시대(朝鮮總督府強占時代) 시작

일본은 8월 30일 칙령 319호로서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을 두어 위임된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일체의 정부를 통할시키게 하고 통감부(統監部)와 그 소속관서는 당분간 존속시켜 조선총독(朝鮮總督)의 직무는 통감이 대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는 발전적으로 조선총독부로 개편되고 통감 사내정의(寺內正毅)가 총독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조선총독부 시대가 시작되었다.

9월 30일 칙령 제 354호로 총독구 관제를 공포함으로서 10월 1일을 기하여 조선총독부란 통치 기구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총독의 명령이 곧 법률이었다. 이것을 제령(制令)이라 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은 정권, 병권, 입법권을 함께 갖고 있는 전제군주와 같은 존재였다.

칙령 제 354호 관제령에 의거한 통치기구를 보면 조선총독부 산하에 총무관방, 총무부, 내무부, 도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를 두고 소속관서에 중추원을 비롯하여 18개의 국, 부, 소 등을 설치하고 이 편제에 15,094명의 직원을 배치하였다. 그 내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에 974명, 지방행정기관

에 4,097명, 사법기관에 1,617명, 치안기관에 2,600명 경제수탈기관에 5,707명, 기타 99명으로 배치하였다. 이 인원배치가 보여주는 것은 치안유지와 이를 통한 충실한 일본화(日本化)를 책동하고 경제수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3. 통치(統治) 기본(基本)은 무단정치

조선총독부의 지배에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치안유지를 위한 헌병경찰제도였다. 이 헌병경찰에 의한 무력적 탄압을 흔히들 「무단정치」라고 이야기 하며 이 시기조선총독부 지배의 특색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통감부(統監部) 시대부터 경찰업무에 관해서는 조선 주둔 일본군대의 관여가 본격화 되었었다. 1906년 8월 칙령 제205호 「한국주둔군사령부 조례」에 의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는 한국주둔군 사령관이 한국방위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한국방위라는 대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국내 경찰 업무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래 日本의 주둔 헌병대가 한국인 무력 항일투쟁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한국내 보안경찰 기능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급기야 일반 행정과 사법경찰에까지 일본 헌병대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4. 철저한 헌병경찰(憲兵警察) 제도(制度)

총독부 설치 이전 대한제국때 일본의 경찰권은 경무고문계, 통감부경찰계, 일본본국 의무성 경찰계 등으로 3원화 되어 있던 것을 통감부 설치에 따라 통감부 휘하의 준사령관으로 하여금 군사경찰을 장악하게 하고 이 군사경찰이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군사 경찰의 일원화를 이룩하였다. 그후 1910년 6월 한국경찰 사무의 위임에 따라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양 경찰조직을 통감 휘하에 통합시켜서 군사경찰인 헌병과 일반경찰이 완전히 합일된 헌병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경무기관의 배치와 인원수를 보면 보통경찰 기관수가 480 개소에 배치 인원은 5,693명이며, 경찰의 직무수행헌병 기관수는 무려 640 개소에 배치 인원수는 2,019명으로 한국인(韓國人)의 생활(生活)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취체(取締) 감시(監視)하기에 이르렀다.

5.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통한 토지의 약탈

1910년 8월 일제(日帝)가 한국(韓國)을 강점하여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국유지를 조사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개편하고 일본 고리대자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 일제(日帝)의 한국 강점후 더욱 급증하는 일본 이민(移民)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일본식민(日本植民)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 확립, 조선총독부가 한국내 미개간지의 광대한 면적에 착안하고 경작지로 개간 가능한 미간척지를 조사하고 점유하기 위하여 식량과 원료, 특히 미곡의 일본으로 수출증가를 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 공업화에 따르는 일본 산업자본의 원동력 부족 문제를 한국의 소작농을 임금 노동자화 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식민통치의 일환으로서 감행된 것이 이 토지조사였다.

이 토지 조사의 방법은 토지조사령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朝鮮總督)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주소, 성명 그리고 소유지의 명칭과 소재, 지목, 지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에 신고해야한다에 의거한 '신고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인정' 주의를 택함으로써 그 무렵 농민은 근대법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못한 사람이 많았으며 그러한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럼으로써 경작자(耕作者)가 소작농민(小作農民)으로 전락하여 한국농민(韓國農民)의 37.6%가 완전(完全) 소작농민(小作農民)으로 전락하고 농민의 77%가 생계(生計)마저 어렵게 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6. 고종(高宗)의 독살설(毒殺說)이 파다

국내에서는 마침 1919년 1월 21일에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후 계속 연금상태에 있던 고종(高宗)이 급서하였다. 고종은 이왕(李王) 은(垠)이 일본 황족 이본궁방자(梨本宮方子)와 강제로 약혼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측근을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날밤 돌연 사망하게 되자 고종이 전에 헤이그 밀사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파리강화회의에도 밀사를 파견할지 모른다고 우려한 일본이 시의 안상호(安尙鎬)를 매수하여 차에 독을 타게 했다는 소문이 돌고 반일 의식이 격렬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우선 천도교, 기독교, 불교 세 교단이 연합 서

명이 이루어지고 민족대표자 33인을 선출하고 선언서를 작성하여 종교 조직과 학생 조직을 활용하여 배포하고 고종(高宗)의 인산일(因山日)을 전후한 날짜로 의전을 조정 하여 3월 1일 거사일로 정하여 서울 파고다 공원에 집결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히 꺾기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했다.

이때에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출신 백용성(白龍城) 선사께서 해인사에 있었는데 불교 대표로 선출이 되어 그 자리에 참가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 만세를 부르다 일헌병(日憲兵)에게 체포되어 1년반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당일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50만명이 넘었으며, 그 후 이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때에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립만세횃수는 1,542회에 동원된 인원수는 2,023,098명에 만세를 부르다 일제(日帝)의 총탄에 사망자는 7,509명, 부상자는 15,961명 체포자는 46,048명이나 되었다.

7. 일면일주재소(一面一駐在所)로 식민지 지배의 힘을 확장

총독부 관제개혁에 제하여 종래의 경찰관제를 폐지하고 경무총감부록 각도(道)의 경무과를 파하여 본부에 경무국을 두어 지방관제의 개정을 하여 경찰권을 각도(道), 지사에게 이관한 것은 기술한 바와 같거니와 이 제도의 확립으로 각 부군(府郡)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시(警視) 경부(警部)로서 그 장에 충당하고 경부(警部)와 경부보(警部補)를 두었으며 대체로 1부군 1경찰서 1면1주재소를 두어 필요한 곳에는 그 이상의 경찰서 또는 주재소를 설치하여 경찰 병력을 증강시켜 식민지 지배의 힘의 배경을 확장하여 한민족 정신 말살에 무별간섭 탄압을 하였다.

장수군(長水郡)에도 장수경찰서(長水警察署)와 각 면마다 주재소(駐在所)를 두어 2~3명의 순사부장(巡査部長) 또는 순사(巡査)가 배치되어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韓國民)의 일본인화(日本人化)를 강요하고, 우리말 말살 정책을 수행하고 심지어 한국민족의 고유 성명제를 폐지시키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협박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일제(日帝)는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도발에 의해 만주사변(滿州事變)이 일어났다. 만주사변 후인 1932년 1월에는 상해사변(上海事變)이 있었고, 3월 1일에는 과도정권인 만주국(滿州國)이 세워졌다. 그 연쇄반응으로 일본은 1933년 3월 국제 연맹(國際聯盟)을 탈퇴하게 된다. 드디어는 1937년 7

월 7일에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을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 하여 사변(事變)으로 선전하면서 단시일에 이 전쟁을 끝내려던 일본의 오산이 확대되어 장기간의 지구전화하면서 그 돌파구로써 1941년 12월 8일에는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를 흔히 15년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식민지 모국인 일본이 전시체제를 앞세워 파쇼화(fascistization)하기에 이르자 일본국 내보다 식민지는 더 잔인한 파쇼화(fascistization)가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일본(日本)은 중국(中國), 미국(美國)과의 싸움에서 그 위기감에 몰리면서 식민지(植民地)인 한국을 전시체제(戰時體制)로 몰아세우면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강요(強要)하며 일본어(日本語) 상용(常用)을 강요하며 우리말을 말살(抹殺)하려 했고, 1937년에는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을 공포하고, 노동보국대(勞動報國隊)란 명목으로 한국인을 일본 각지의 탄광, 금속광산, 수력발전소, 철도, 도로, 군수공장, 위안부에 이르기까지 무려 113만이나 도처에서 생사 거처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연행 혹사를 당하였다. 1944년 4월에는 의무병역으로서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전역 최전선 총알받이로 209,279명이나 일본으로 강제 끌려갔었다. 1942년 조선총독부는 식량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미곡을 강제 공출하게 하여 1941년에는 생산량 43.1%, 1942년에는 45.2%, 1943년에는 55.7%, 1944년에는 63.8%까지 강제 공출을 하게 하여 한국민은 식량난으로 아사지경까지 몰아넣게 하였다.

8. 장수군(長水郡)의 독립만세운동

본군의 독립만세(獨立萬歲)는 산서면 사계리(山西面 社桂里)에 있던 지금당(至今堂)에서 글을 읽고 있던 서당(書堂) 생도(生徒) 박정주(朴政柱), 정호현(丁豪鉉), 정봉수(丁奉洙), 김형택(金炯澤), 이화백(李化伯), 이길선(李吉善), 이상욱(李相煜), 유동렬(柳東烈), 이상일(李相一), 이규섭(李圭燮), 장화삼(張華三), 정대화(丁大和), 육상룡(陸相龍), 권봉옥(權奉玉), 이종호(李鍾昊) 등 15명은 1919년 3월 23일 오후 3시 마을사람 20여명과 같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사계산(社桂山)으로 올라가 20여분간 독립만세를 부른 후 동화리 장터로 달려가 그곳 사람들과 만세운동을 전개 일제침략에 항거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갖은 고난과 협박, 회유가 계속되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한편 장수읍 용계리 천도교 장수 교구장 박영춘(朴永春)의 집에서도 최영식(崔永植) 신동문(辛東聞) 장재만(張在萬) 양일표(梁日杓) 빈영섭(貧永燮) 김봉기(金奉基) 유동렬(柳東烈) 차대성(車大成) 최병식(崔秉植) 김주식(金周植) 양성표(梁成杓) 장종렬(張宗烈) 장칠규(張七奎) 정선흥(鄭善洪) 신덕환(申德煥) 우의순(禹義順) 정주용(鄭珠龍) 박원소(朴元昭) 박일양 장봉현(張奉鉉) 신용환(申龍煥) 백수갑(白壽甲) 등 23명이 모여 군내 각 면에 독립선언서를 요소요소에 붙이고 태극기를 준비하여 3월 5일 장수 장날을 기해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튿날 밤부터 야음을 타고 활동에 나섰는데 이때의 각 면책들은 장수읍에 신동개, 최영식, 산서면에 유동렬과 차대성, 장재만, 번암면에 빈영섭과 최병식, 김주식, 장계면에 양성표, 장종렬, 장종철, 천천면에 정선흥, 신덕환, 우의순, 계남면에 정주용, 박원소, 박일양, 계북면에 장봉현, 신용환, 백수갑 등 이들은 각 면사무소 주재소 게시판에 독립선언서를 붙이었다. 이 사실을 안 일본 헌병대는 진안, 남원, 무주 등지의 헌병 지원을 받아 감시했고, 그 결과 목적을 달성 못한 채 박영춘, 최영식, 신동문, 장재만, 양일표, 빈영섭 등 6인은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들 6인은 끝끝내 자신들 밖에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여 나머지 17인의 동지들은 일제의 마수로부터 구속을 면했다.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누설됨으로써 이 고장의 만세운동은 천추에 한을 남긴 채 무산되고 6명의 지도자만이 옥고를 치렀다. 또한 번암면 죽림리 박준수(朴俊洙)는 단신으로 번암 시장 만세를 계획하고 이공일(李工一), 이종대(이(李)鍾大) 등과 뜻을 합하여 행동에 나서려 했으나 이 역시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옥고를 치렀다.

1945년 일제로부터 조국광복이 되자 조국광복에 뜻을 바친 선열들의 일을 기리기 위하여 본군 산서면에서는 1983년 뜻있는 면민들과 유족의 주도로 아래 조국광복을 위하여 몸바친 선열들의 일을 추모하고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부산, 대구 법원에서 관련자료를 발취하여 기념비를 건립키로 발의하고 면민들의 성금을 모아 동화리 경로당 옆에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나 기념비 장소가 너무 조잡(稠雜)하여 이전키로 하고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수군 기념사업으로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251-1번지에 대지 674㎡를 마련 삼일독립기념비(三一獨立 紀念碑)를 이전하였다.

제 2절 광복이후의 장수(長水)

1. 일제로부터 광복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8·15 광복을 맞이하여 많은 재일 동포들이 조국을 찾아 귀환하였다.

일제는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갖고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그 와중에 우리는 주권(나라), 영토(국토), 문화(한글, 언어), 이름(창씨개명)까지 빼앗겼을 뿐 아니라 징병, 징용, 정신대, 보국대 등의 이름으로 짓밟히면서 쌀을 비롯한 모든 생산물과 모든 문화재, 심지어 밥그릇까지 빼앗겼다. 이런 만행을 일삼은 일본이 처음에는 기습 공격으로 승전한 듯 하였으나 미국이 1945년 8월 6일 광도(히로시마) 8월 9일 장기(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순식간에 두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수십만명의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하는 수 없이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조국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양시에 살던 한국인 5만여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한 5만여명은 비록 생명을 건졌으나 부상이나 방사능에 기인한 특수한 건강 장애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2,500명이 원폭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정신대로 끌려가 폐인이 된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지금까지도 양국간에 국제적 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2. 6·25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으로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에 의해 도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조인으로 끝난 전쟁이다.

6·25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양대 진영의 대립이 열전화한 실전이며, 국부전인 동시에 전면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 전쟁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강점에서 광복되어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민족은 동년 12월 17일 미국, 영국, 소련의 3상회의에서 결정된 5년간의 신탁통치 결의에 대하여 좌·우익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런 좌익세력의 찬탁으로 좌·우익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지게 되

었다. 군정 초기 북한지역으로 진주한 소련은 일제의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의 통치권을 지역별로 접수하면서 김일성을 내세워 1946년 2월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기틀을 닦았다. 이보다 늦게 미군정 당국은 남한에 1947년 12월 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해 6월 미군정청 법령에 의해 남한 정부를 '남조선 과도정부'라 하였다.

이에 1947년 9월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 동년 11월 4일 미군측의 의도대로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총회에서 가결시켰다.

유엔총회 결과에 따라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내한 총선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북한지역에서는 소련의 영향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유엔에 보고되었고, 유엔에서는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1948년 5월 10일 북한지역에 배정된 의석수를 남기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5월 18일 제헌국회가 개원되고,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과 아울러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였다.

이에 북한에서는 9월 7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분단의 상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북한은 1948년 2월 인민군을 창설하고 「조선보위 후원회」를 조직하여 비행기, 탱크 등의 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949년 3월 소련과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여 남침준비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3.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 웅진 반도에서부터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38선 여러 지역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개전에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까지 37개월 동안 한국전쟁의 군사적 전개과정은 군사적 상황의 추이에 따라 4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동년 9월 중순까지의 시기로 인민군의 공세 속에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두번째 국면은 1950년 9월 중순부터 북진하는 유엔군이 다시 후퇴하기 시작한 동년 11월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유엔군의 북진과 중

공군의 개입이 이루어 졌다.

셋째번 국면은 1950년 11월 말 이후부터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시작되는 1951년 6월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유엔군의 후퇴가 이루어졌고, 이어 전쟁이 재현되면서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었다.

넷째번 국면은 1951년 6월 하순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휴전협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4. 6 · 25 한국전쟁과 장계 전투

6 · 25 한국전쟁의 한국군은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자,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북한군은 여세를 몰아 한강을 돌파하여 한국군과 경찰의 국부적인 저항을 받아가면서 거침없이 남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북한군의 주력부대의 일부가 대전을 거쳐 금산으로 진입 무주를 점령하고 동년 7월 26일 새벽 2시경에 금덕리 집재를 넘어 장계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시 장계에는 남원 전주쪽에서 몰려 집결되어 있던 경찰병력과 지역 방위 300여명이 전투태세를 갖추어 강력한 반격을 가하였으나 정규군에다 화력도 제대로 갖춘 큰 병력을 대항할 길이 없었다.

3~4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중과부적으로 아군은 후퇴를 하였으며 장계는 북한군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다.

북한군 주력부대는 장계를 점령하고 육십령쪽으로 진격을 시작 낙동강 전선까지 계속 진격을 하였다.

한국군은 계속 밀리면서 악전고투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적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낙동강 전선에서 대구지구 방어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창녕-합천, 대구-대전, 대구-상주-충주, 영천-안동, 포항-영덕 5개 축선에 방어력을 증가시켰다.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손실이 누적되었다. 한

국군은 제1사단 제12연대가 다부동지역의 적 측후방의 효령으로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미 제5연대 전투단이 왜관을 탈환하고 한국 제3사단이 포항을 탈환하면서부터 적의 방어선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1950년 9월 대공세(제5차 작전)로 창녕지구를 방어하던 미 제2사단은 방어진대 중앙이 돌파 당하여 낙동강 동쪽의 오봉리-주매리-본촌리 전선에서 기진맥진한 적을 가까스로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미 제2사단의 작전지역은 창녕과 영산의 2개 지구로 양분되었고, 적 제2 제9의 2개 사단과 대치한 상태에서 반격을 전환하게 되었다. 미 제2사단은 낙동강 동쪽지역에서 저항하는 적을 낙동강 서쪽 대하 너머로 구축한 다음 낙동강 도하지점에 교도부를 확보하기 위해 좌에서 우로 제9 제23 제38연대순으로 3개 연대를 병진대형으로 전개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 제38연대 제2, 제3의 2개 대대 전투 정찰대는 부곡리 나루터에서 낙동강을 건너 수색하던 중 이외로 대세를 강제하는 중요 고지에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제2대대를 도하시켜 창녕-초계 축선상의 강세 고지인 308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교도부 확보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에 뒤이은 총 반격 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완강히 버티던 북한군은 퇴각을 단행하였다. 낙동강 전선에서 퇴각하던 북한군은 한국군의 진격으로 속도를 지연시키어 시간을 획득하여 그들의 주력부대의 후퇴이동을 도우려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실패하고 단지 단기전으로 지연전만을 펼친 것이 고작이었다. 적의 퇴각과 함께 한국군과 미군은 추격의 힘찬 거보를 내디디게 되었다. 미 제8군은 추격기동계획을 수립하여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9사단은 고령-합천-거창-안의-장계-전주-강경 축선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군은 중·동부전선에서 포위 기동으로 지역내의 적을 격멸하는 작전을 수행 하였다.

북한군이 퇴각 장계를 통과할 때에 미 공군이 북한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적이 숨어든 장계 시가에 폭탄을 투하하여 장계 중심지 시가가 화재가 발생 파괴당하여 폐허가 되기도 하였다.

한 미 합동 강력한 추격전에 퇴각로를 차단당한 패잔병은 덕유산 장안산으로 입산하여 세력을 규합하여 이현상부대에 합류하여 깊숙한 산속에 아지트를 구축하여 밤에 민가에 출몰하여 식량, 의복 등 보급품을 약탈하여 장수지역 주민들을 괴롭혀왔으며, 이현상부대는 패잔병을 계속 규합하여 덕유산-장안산-지리산을 왕래하면서 빨치산화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장계지서

의 습격 계남지서의 습격 등의 만행을 계속하였으며, 한때는 명덕리 전지역을 점령하여 수일동안 그들의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였으며 장수경찰서장과의 회담을 요청하여 와서 상호 신분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이 현상과 장수경찰서 사찰주임이 명덕리와 삼봉리 점령지역인 장계변전소에서 회담을 하기도 하였다.

이현상 부대는 정규군의 패잔병과 지방의 공산 잔당을 계속 규합하여 정규전 태세를 갖추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계속하였다. 장수지역에서는 군경이 작전을 전개하는 인근지역에서만 치안이 유지되었고 산간벽촌과 군·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면소재지까지도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는 지역이 허다하였다.

이같이 지리산,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 영남 동·서부의 작전 토벌작전은 1개 야전사령부와 전방의 5개 사단이 교대로 투입되어 1954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완전 격멸은 1956년 말에 가서야 이룩되었다.

5. 4 · 19 혁명과 장수

6 · 25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안으로는 정치적인 위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몇 차례에 걸친 정 ·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부정은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이는 결국 3 · 5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하여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혁명으로 발전하였으니 이것이 4 · 19혁명이다.

1960년 3 · 15 정 ·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과 정부는 관권을 이용하여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전국민을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이 같은 자유당의 횡포를 보다 못한 대구 학생들이 2월 28일 처음으로 데모를 벌였으며 3월 15일 자유당의 부정투표 공작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행되었다 이날 마산에서는 시민 학생들이 데모를 벌였는데 이때 경찰은 데모 군중에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냈고 이승만정권은 마산 사건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조종 개입하였다는 조작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마산 시위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김주열군의 시체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닷가에서 떠오르자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에서는 4월 18일에 3천여명의 고려대 학생들의 데모에 이어 4월 19

일에는 시내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부정선거와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5일 대학교수들의 시위에 이은 학생 시민들의 계속적인 하야요구로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자유당 독재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4월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장수에서도 야당원들의 시위대가 자유당사를 파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6. 5·16정변과 박정희정부

박정희대통령(5대~9대, 공화당)

2공화국의 혼란을 틈타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다. 개혁을 앞세워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해 권력을 차지하였다.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한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업적을 남겼다. 국민이 직접 뽑은 선거를 통해 5, 6, 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나라발전을 가속화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헌법을 고치고 간접선거를 통해 8, 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독재에 저항한 학생, 시민을 탄압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던 노동자들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일협정을 줄속으로 맺어 종군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해 깨끗한 정리를 하지 못했다. 박정희대통령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아직 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7. 제5공화국과 장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박대통령 서거 후 당시 국무총리인 최규하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위기관리 내각의 역할을 하였지만 사회의 각계에서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유신잔존 세력의 후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발생하자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 수습하려 하는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규모적인 정치·사회·문화의 개혁을 주창하며 무력으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은 정치범으로서 영

어의 몸이 되어 있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8. 제6공화국과 장수

가. 제13 대 노태우 정부출범(민주자유당, 1987)

제5공화국 신군부정권은 집권계승 시나리오에 의해 12·12 군사반란의 동지 노태우를 차기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또 다시 간접선거로 하기에는 6월 항쟁으로 국민의 저항이 거셌다.

이에 그들은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한 6·29 선언을 하여 헌법을 바꾸기에 이른다. 그 가운데 민주화투쟁의 최대과제였던 대통령선출 규칙이 핵심이었다. 국민투표를 거쳐 1987. 10. 29 확정 공포된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7 조」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후보는 집권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와 야당의 이른바 ‘3김’으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의 군소후보 등 8명이었다. 그 중 관심은 이른바 ‘1노3김’에 모아졌다.

특히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동반자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단일화를 기대했으며 공동으로 신한민주당을 붕괴시키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이 중심에 위치하여 김대중은 밖에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여 출마함으로써 야권은 분열된 채 선거를 맞았다. 노태우는 경북·대구를 근거지로하여 여당의 이점을 살려 친여적 지역인 강원·충북에 기대를 걸었다. 김영삼은 연고지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여 지지를 모아갔다.

특히 김대중은 호남, 김종필은 충청을 중심으로 표를 모아갔다. 노태우는 호남유세에서 달걀과 돌 세례를 받고 유세를 중단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등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지역대결로 치달았다.

선거중 반 김영삼후보측이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로 전역 당했던 전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을 영입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일어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과 선거일 바로 전날 용의자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면서 여당인 노태우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노태우는 36.6%의 최다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노태우대통령은 전두환대

통령의 육사동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후계자였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자와 김영삼후보자가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표가 나뉘게 되어 노태우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정과 부패의 악습은 버리지 못했다. 노태우는 6·29선언으로 제6공화국을 출범시키었으나 임기가 끝난 후 정치범으로 영어의 몸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 14대 김영삼 정부출범(신한국당, 1992)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각기 통합된 정치권의 재편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먼저 1990년 3당 통합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은 대통령후보문제를 둘러싸고 각 계파간의 알력이 표출된 가운데, 1992년 5월 19일 여당사상 처음으로 대통령후보경선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이종찬의 경선거부로 단독 출마한 경선에서 총 투표수 6,660표 중 66.3%인 4,418표를 얻어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또한 1991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당은 5월 26일 개최된 대통령후보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후보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김대중은 1971년과 1987년에 이어 대통령선거에 3번째 도전하게 되었다.

한편 1992년 1월창당하여 3·24총선에서 21석을 획득함으로써 급부상한 통일국민당은 5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정주영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민주당의 정주영, 신정당의 박찬중, 정의당의 이병호, 무소속의 백기완, 김옥선등의 7명의 후보들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81.9%를 나타낸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결과 민주자유당의 김영삼(金泳三)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2.0%인 9,977,332표를 획득하여 8,041,284표(33.8%)를 획득한 신민당의 김대중후보를 190만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16.3%인 3,880,067표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김영삼은 노태우와 김종필과 손을 잡고 민자당 대통령후보가 되어 9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보선대통령 이후 30여년만에 취임한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초기에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서해훼리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사고, 여객기 추락사고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이 부정부패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국내에 남아있던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노력한 공로는 있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가져와 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렸다.

다. 15대 김대중 정부출범(새천년 민주당,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한보 부도로 시작된 전례 없는 기업부도와 금융위기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금융신청이라는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상태에서 치러지게 된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후 민자당에서 당명을 바꾼 신한국당은 1997년 7월 집권당 최초로 이루어진 자유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김덕룡, 이한동, 이수성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40%의 지지를 획득한 이회창후보가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여당 사상 첫 자유경선을 통해 탄생한 이회창후보가 아들 병역비리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이인제 당시 경기자사가 “결정적 힘이 있는 인물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며 탈당해 독자출마를 선언했고 1997년 11월 초 ‘국민신당’을 창당하게 된다.

신한국당 이회창후보는 ‘김영삼대통령의 신당지원설’을 집중 제기하여 이인제후보를 견제함과 동시에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으로써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합당하게 되어 양쪽을 견제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1997년 11월 21일 통합신당인 한나라당을 출범시키고 총재에 조순, 대통령후보에 이회창을 선출하였다.

한편 정계복귀와 더불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대통령후보로 나선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DJP 연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국민회의 김대

중후보 그리고 국민신당 이인제후보의 3자 대결모습이 굳어졌으며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선거 처음으로 TV토론이 도입되었다. 1987년 대선이 '동원선거', 1992년 대선이 '신문지 선거' 라면 이번 1997년 대선은 '방송선거' 라고 규정될 만큼 방송미디어의 효과가 컸다.

그리고 '3김 청산' 과 '수평적 정권교체' 라는 커다란 구호 속에 이회창 한나라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이인제후보의 경선불복,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해결방안 등이 선거기간 내내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장수에서는 황색바람의 영향으로 김대중후보를 적극 지지로 개표결과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40.3%(10,326,275)을 얻어 38.7%(9,935,718)을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불과 약 39만표로 따돌리고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기간 내내 '경선불복' 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는 약 5백만표(19.2%)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대중후보의 결정적인 승리요인은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간의 3자 대결구도였다. 이회창과 이인제로 '황금 분할된' 보수, 영남의 지역감정 속에서 'DJP 연합' 을 통한 호남, 충청지역의 결집효과가 다른 요소들을 압도했다.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실패로 비난을 받게 된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재집권에 실패하고 결국 김대중후보가 19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전두환으로부터 이어내려 오던 권력이 교체되었다는 의미를 가졌다.

1998년 대통령에 취임과 동시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을 추진했으며 2000년 6월 13~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6·15 남북공동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의 평화에 대한 공로에 의해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노력에 힘입어 나라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하지만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정책을 펼쳐 아직까지도 IMF의 후유증을 앓게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2009년 8월 18일 86세를 일기로 지병으로 서거하였다.

라. 16대 노무현 정부출범(열린우리당, 2002)

2002년 대통령선거는 21C 이후의 첫 대통령선거라는 점과 포스트 '3김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친 선거였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금융과 경제불안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한국정치를 이끌어 왔던 3김의 영향력도 이미 그 흔적이 희미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야 후보들은 흥망과 성쇠를 거듭했는데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에 시작된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에서 노무현은 국민경선을 통해 이인제를 누르고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로 뽑히게 된다. 이인제후보의 압도적인 우세라는 분위기에서 시작된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은 노무현후보가 젊은층을 원동력으로 일명 '노풍'이라 불리는 저력을 보이며 역전에 성공한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시종일관 이회창후보의 우세로 흘러 결국 이회창총재가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양당의 대통령후보경선 후 바로 맞은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대중대통령 아들 비리로 인해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두게 된다. 월드컵의 열기 속에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노무현에게 후보사퇴론, 재정선론을 부르며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바로 이어서 실시된 미니총선급의 8·8보궐선거(2002.8.8) 역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후보재정선론'에 휩싸여 한치 앞을 대다 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이회창 대세론'으로 한층 주가를 올리던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는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대통령후보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기세가 조금씩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 월드컵 4강 신화를 등에 업은 정몽준의 등장은 전형적인 양자대결구도를 갑자기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3강체제로 바꾸어 버렸다.

노무현 대선후보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분열로 인해 당원들이 탈당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회창후보는 병풍으로 이렇다 할 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당시 정몽준의원의 등장과 그 파급력은 실로 국민경선 당시의 노풍 못지않았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정몽준의 인기는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했고, 노무현과 정몽준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고, 11월 24일 역사상 초유의 전화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몽준은 2002년 12월 18일 밤, 선거운동 마감시간을 몇 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국민통합당 21의 단일 후보인 노무현에게 지지철회를 선언하게 된다.

이 선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여·야 모두 대통령후보를 일반 국민들이 포함된 국민경선을 통해 뽑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후 각종 선거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두 번째는 각종 선거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오던 인터넷이 가장 주요한 압력 있는 매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강화된 선거법으로 그 동안 맹위를 떨쳤던 조직, 금권선거가 TV와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게 확실하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회 선거와 비교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증폭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사랑(이회창을 사랑하는 모임), 문준사랑 등의 정치인 팬클럽이 등장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정치인 팬클럽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여 이번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정치인 팬클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노사모는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모임이 구성되어 인터넷(온라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오프라인)에서도 조직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치인 중심의 수직적 위계형 참여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 참여구조로 일반국민들의 정치 참여방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다.

네 번째는 세대 간 차이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정치 주체의 교대와 정치 참여자의 세대교체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 정치참여파와 탈 정치화된 무관심파로의 이분화가 심화되었다.

장수에서는 민주당 기반의 노무현의 적극지지로 개표결과 48.9% (12,014,277)를 얻은 민주당 노무현후보가 46.6% (11,443,297)을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3.2% (570,980)차이로 따돌리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 전날 있었던 정몽준의 노무현후보 지지철회는 부동층의 기권을 불러

왔지만, 민주노동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가 노무현에게 투표함으로써 승부자 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승리요인은 국민경선, 인터넷, 30대, 후보단일화 등이 꼽힌다. ‘국민통합’,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슬로건과 감성적인 선거운동이 ‘안정이나, 불안이나’를 구호로 내건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승리했다는 분석도 있다. 부정부패의 정치에 혐오를 느낀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한 세대교체의 의미를 가지고 기존의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서려 노력했고, 권위주의적이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권력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부정부패의 정치권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 의 요구보수 세력의 저항을 가져오고 결국 2004년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대통령직이 정지되게 됐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의 희망에 따라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게 되자 탄핵은 무효화되었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경제위기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최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대조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은 퇴임 후 낙향하여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사저를 꾸리고 생활하던 중 태광실업의 대표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리어 2009년 5월 23일 고향의 앞산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서거 하였다. 장수에서는 장수군청 앞 민주당 연락사무소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서거에 많은 군민이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마. 17대 이명박 정부출범(한나라당, 2007)

지난 정권을 돌이켜보면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당시의 야당이 금융개혁을 가로막았다 하였지만 경제적 위기를 갖어 왔고, 김대중의 국민정부는 문민정부에서 실패한 경제적 파탄을 수습하는 IMF 금융구제책으로 외국기업들에게 국부를 내준 꼴이 되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부의분배라는 짐을 서민들의 어깨위에 짊어지게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해져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직자가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졌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은 기업을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난국을 극복한다는 종합대책을 내세워 선거전에 나섰다. 이 대선에 대통합민주당에 정동영, 민주

당에 이인제, 민노당에 권영길, 창조당에 문국현, 참주인당에 정근모, 경제산당에 허정영, 새시대당에 진관, 한국당에 금면, 무소속에 이회창, 심대평, 이수성이 등록을 했지만 심대평과 이수성은 사퇴를 하고 10 명의 후보가 난립 각축전을 벌리었다.

투표결과는 총 유권자수 37,653,518 명에 총 투표자수는 23,732,854명 (63.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후보자별 투표결과는 1 위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48.7%인 11,492,389표를 얻어 압도적인 당선이 되었다. 2위는 대통합민주당인 정동영이 26%인 6,174,681 표를 얻었고, 3위는 무소속으로 출범한 이회창이 3,559,963 표를 얻었다. 4위는 문국현, 5위는 권영길, 6위는 이인제, 7 위는 허정영, 8위는 금면, 9위는 정근모, 10 위는 진관 순이 되었다.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은 추락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국정지표를 실천하는 정부, 세계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지표를 내걸고 출범하였다.